

일제강점기 역사자료를 한눈에

군산역사관, 특별기획전 '수탈의 기억 전라북도' 개최... 만고역적 이완용 부인 관 뚜껑 최초 공개

일제강점기 역사자료를 바탕으로 개관한 군산시 군산역사관(동국사)에서 제1회 특별기획전을 개최한다. 이 전시는 내년 2월 29일까지 열린다.

대한민국 일제강점기 수탈역사 전시공간에서 열리는 '수탈의 기억 전라북도'는 상해임시정부 재무총장 이시형 명의의 발행한 임시정부 독립공채가 공개됐다.

만고역적 창씨명 이가완용(李家完用) 코너는 전라도 관찰사 이완용의 전기인 '일당(一堂, 이완용의 호) 기사', '이완용 필 천자문', '후작 이완용 부인 관 뚜껑', '명성황후 시해 가담자 이두환 유묵' 등이 자리했다.

이 물품은 1979년에 증손자 이석형이 여산

미륵산에 있던 부부합장묘를 파묘해 조각할 때 불속에서 꺼낸 것으로 부인 관 뚜껑에는 '고 정2위 대훈위 후작 이완용 부인 000' 붉은색 경명주사 글씨가 아직도 선명하다.

일제가 전쟁에 광기를 부리던 1937년 전라북도 도민이 헌납한 폭격기 사진과 현상공모로 당선된 LP판도 선보인다. 도민성금 모금은 손영목 전북지사가 주도했고, 총 3대의 전투기를 헌납한 것으로 나와 있다.

전북호 출정기는 일본인이 사장으로 있던 전북일보사에서 현상공모하고 콜롬비아 레코드사에서 제작한 것이다. 음원은 디지털로 복원돼 전시 기간에 미디어실에서 상영한다.

/군산=김정훈 기자



이완용 부인 양주조.

김제 역사문화답사, 교육지원청 교사 등 적극 호응

김제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소장 신형순) 산하 아리랑문화관에서 진행 중인 김제 역사문화답사 '소설 깃들을 만나다'에 김제 교육지원청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현장 교육을 실현할 예정이다.

이번 답사는 아리랑문화관에서 진행되는 지역문화관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조정래 소설 아리랑의 배경지 죽산면, 임영춘 소설 '깃들'의 배경지 공황면 일대를 답사하는 과정을 통해 일제강점기 지역 역사와 김제 정체성 교육을 현장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김제시민, 교사, 청소년 등 누구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지난 11월 19일에 진행된 1차

답사에는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 직원 38명이 참여하여 3시간 30분 동안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구체적인 답사코스는 다음과 같다.

아리랑문화관-아리랑문화마을-구 하시모토농장사무소-광활 간척지 일대-새만금 비람길(망해사-전선포)-새창이 다리-벽골제아리랑사업소 3차 답사는 12월 12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신형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김제 역사문화답사에 지역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셔서 감사하며 내년에는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모를 확대하고 내실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문화예술회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음악회 개최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는 오는 12월 13일 오후 7시 공연장 상주단체 마지막 공연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주회는 기존 공연과는 달리 김제 시민들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동호회, 동아리, 탐들이 참여하는 공연으로 기획했다.

첫 곡 '월리엄 텔 서곡'을 시작으로 두나미스 중창단의 '사랑의 종소리', '축복하노라'의 아름다운 하모니와 Sing우물리나양상을 팀의 Drop Baby Drop, 그밖에 10명의 청소년이 미뉴에트 1, 2, 3번의 바이올린 협연으로 공연의 재미와 감동을 더한다.

또한 7000 가수 이진관이 공연에 함께해 '인생은 미완성', '오늘처럼' 등 옛 추억이 가득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관람권 예매는 12월 3일 오전 8시부터 김제문화예술회관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mp.go.kr/art>)에서 동시 선착순 무료로 배부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장수 빛나는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성황리 마쳐

장수문화원이 주최·주관하고 장수군과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농협 장수군지부, 장수군 야구연합회에서 후원하는 '기적의 오케스트라 2019 빛나는 오케스트라 제7회 정기연주회'가 최근 장수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기적의 오케스트라' 장수 빛나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바흐모음곡, 위풍당당 행진곡, 가브리엘 오보에, 보헤미안 랍소디 등 총 9곡을 선보였다.

창단 7년차를 맞이하는 장수 빛나는 오케스트라는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관내 소외아동과 일반아동 50여명으로 단원을 구성하고 다양한 악기를 교육하고 있다.

우노첼버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의 지휘와 12명의 강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번 음악회는 9개월간의 파트별 연습과 합주연습을 통해 익힌 빛나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정기연주회를 관객과 음악으로 소통하는 꿈의 무대를 연출했다. 장수문화원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수준 높은



음악교육을 통해 지적 감성을 높이며, 좋은 성품과 인격 형성에 동력이 되고자 오케스트라를 만들게 되었다.

권승근 장수문화원장은 "오케스트라 교육은 문화적으로 열악한 환경의 아동에게 음악을 통해서 서로간의 화합과 조화로운 배움을 배우고 상호간의 협력과 배려로 공동체의 중요성을 경험하여 내적 외적으로 변화하는 사회에서 긍정적인 주역으로 성장시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2019 태권도원의 밤' 행사가 최근 태권도원 도약센터 나래홀에서 진행됐다.

내년에도 태권도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태권도원의 밤 행사 성료... 공로상·업무유공 표창도 진행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은 올 한 해 태권도 및 태권도진흥재단 발전과 태권도원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시상식과 지속된 발전을 다짐하는 '2019 태권도원의 밤' 행사를 최근 태권도원 도약센터 나래홀에서 진행했다.

'2019 태권도원의 밤'에는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이상욱을 비롯해 대한장애인태

권도협회 장용갑 회장, 국가원세계태권도연수원 윤용석 원장, 황인홍 무주군수, 유승열 무주군의회위원장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장용갑 회장이 태권도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이 밖에도 태권도진흥재단 및 태권도원 발전·활성화 유공으로 무주군의회 이해양

의원, 한국문화정보원, 광주광역시 태권도협회 등 개인 및 단체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태권도진흥재단 이상욱 이사장은 "수상자분들에게 축하 인사드리며 태권도 발전을 위해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라며 "올 한해 재단은 태권도 공공문화외교와 태권도 진흥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내년에도 이 같은 노력을 통해, 태권도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가겠다"고 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2019 전국 청소년 마술경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합니다』

군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펼치겠습니다



장수군의의회
<http://council.jangsu.go.kr>